<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물, 자연 그리고 사람 K-water Monthly Magazine Vol. 693 2025년 12월호

K-water Monthly Magazin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693
12

나의 마음을 담아 보내는 시간

GIFT

THEME 1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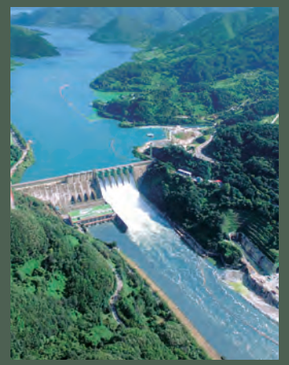
12월호의 키워드는 'Gift'입니다.
여러분은 'Gift'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첫 번째 테마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마음을 건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 서로의 가장 따뜻한
온기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THEME 2

재능

두 번째 테마는 '재능'입니다.
'재능'이란 한 사람의 삶을 넘어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밀어주는 힘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노하우로 물의 길을 만들고, 그 길 위로 내일이 흐르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선물







6. 월간 수토픽
안전한 물길 40년, 상생의 미래로!
충주댐 준공 40주년

10. Gallery
선물이 가져다준
기억

14. Theme Road
바다가 도시를 만났을 때
진짜 부산

20. Travel Guide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크리스마스 명소

22. Voice on Road
춤으로 새기는 몸의 언어
무용수 이주호

26. The Kit
오늘은 내가 산타
설렘을 담은 크리스마스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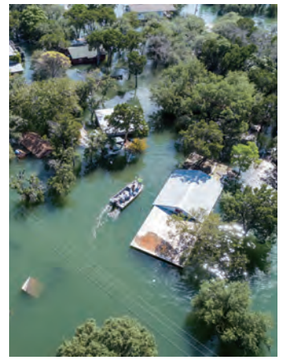
28. Taste Note
자연이 주는 달콤한 선물
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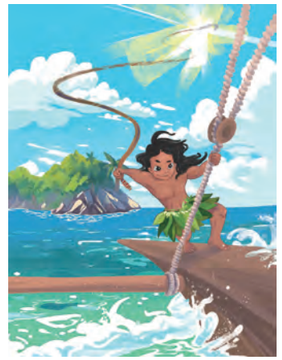
창간일 1968년 1월 | **발행일** 2025년 12월 1일 | **통권** 693호 | **편집** 홍보실
발행처 한국수자원공사(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재능







30. Theme Prism
우리가 주고받은 gift를 말하다

32. Opinion
자기 오해의 인지 심리학:
재능 부족이라는 착시

34. Talk with
달콤한 목소리로 전하는 사랑 이야기
가수 경서

38. 수타벅스가 간다
함께 써 내려간 첫 페이지
낙동강동부사업단

42. Water & Tech
정책과 투자 결정의 새로운 변수
기후비용

46. Light on

52. Newsroom

56. Monthly Issue
자연을 위한 객관적인 접근

58. Water Tales
전지전능한 영웅
마우이가 남긴 선물

60. #알고리즘

61. 만족도 조사

62. 방울사서함

K-water SNS에서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웹진

글. 편집실 **사진.** 한국수자원공사





안전한 물길 40년, 상생의 미래로!

충주댐 준공 40주년

1985년 완공 이후 국가 수자원 관리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온 충주댐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물관리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준공 40주년을 맞은 충주댐은 이제 기후 대응, AI 기반 물관리, 지역 상생을 아우르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물관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충주다목적댐 준공식(1985.10.17)

충주댐 준공 40주년, 새로운 도약을 하다

대한민국 산업화와 도시화의 기반이 된 충주댐이 준공 40주년을 맞아 기후 대응과 AI 전환, 지역 상생을 위한 미래 인프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주댐 물문화관 잔디광장에서 충주댐 준공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충청북도지사, 충주시장, 제천시장, 단양군수 등 주요 내빈과 지역주민 7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지난 40년간 충주댐이 이뤄낸 성과를 돌아보고, 기후 대응과 지역 상생을 중심으로 한 미래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충주댐이 단순한 수자원 공급 시설을 넘어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인프라이자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산업화의 상징에서 기후대응 인프라로

1985년 완공된 충주댐은 남한강 유역의 수자원을 개발하여 댐 하류지역에 농업,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동시에 홍수조절과 수력발전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당시 한강 중상류지역의 연간 강수량은 1,200~1,300㎜ 수준이었으며, 이 중 60% 정도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반복적인 홍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컸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개발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생활·공업용수와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수자원 불균형과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높이 97.5m, 길이 447m, 총저수용량 27.5㎥ 규모의 충주댐이 건설되었다.

충주댐은 유역면적(6,648㎢)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 다목적댐이다. 6.2억 톤의 홍수 조절량을 바탕으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 기록적인 홍수 상황에서 한강 유역 2,500만 명의



충주댐에서 진행된 홍수기 전사합동훈련

생활권을 보호해 왔다. 또한 연간 33.8억㎥의 생활·공업용수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충주·청주·오창·반월 등 중부 내륙 주요 산업단지의 성장 기반을 뒷받침했다. 수력 발전 측면에서도 기여도가 높다. 연간 8.5억kWh의 청정 수력에너지를 생산해 약 27만 가구의 전력 사용량을 충당하고 있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수력발전량의 약 40%, 국내 일반 수력발전의 최대 약 2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다목적 기능을 기반으로 충주댐은 완공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국가 경제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충주댐

충주댐은 지난 4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상생과 기후 대응, AI 전환을 위한 미래형 댐으로 그 역할을 넓히고 있다. 특히, 충주댐에 담긴 풍부한 물의 가치를 지역 경제와 문화, 관광 등과 연계해

충주댐 준공 40주년 기념식



지역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요 목표다.
충주댐 건설로 만들어진 충주호와 탄금호는 '내륙의 바다'라 불리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이를 기반으로 수변길, 자전거도로, 전망대 등 다양한 탐방 인프라를 조성했고, 충주호 관광선과 월악산 국립공원, 청풍호 벚꽃 축제 등과 연계해 지역 관광 활성화의 중심지로 활용되고 있다.
수심이 깊고 수면이 잔잔한 탄금호는 조정·카누 등 수상스포츠의 명소로 발전했다. 탄금호는 2,000m 주로를 갖춘 국내 조정경기장의 중심지로서 한국수자원공사 실업 조정선수단의 훈련지이자 탄금호 조정대회의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충주댐 어린이 탄소숲 조성사업', '충주댐 물빛길 조성사업' 등 댐과 주변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지역 협력사업도 꾸준히 추진 중이다.
또한, 19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주민 주도형으로 전환해, 지역이 직접 성장과제를 발굴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이 직접 참여해 조성한 친환경 경관단지 '청풍 아름그린'은 계절마다 새로운 경관을 선보이고 있으며, 2023년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장자늪 카누체험장'은 국내 유일의 수로형 카누 투어 프로그램으로 시범 운영 첫해에만 1천 명 이상이 이용하며 충주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성장했다.
이밖에 공공빨래방 운영, 찾아가는 정리수납전문가 서비스, 미래세대를 위한 육영사업 등 다양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지속해 오며 지역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AI·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미래형 댐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구조 전환도 충주댐의 새로운 과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트윈 등 첨단 물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댐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실시간 재난 대응과 예측 중심으로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남한강 유역 홍수조절의 52%를 담당하고 있는 충주댐은 올해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사전 방류를 실시하여 충분한 물그릇을 확보하였고, 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계획적인 운영으로 약 16억㎥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해 상·하류 지역의 피해 없이 안정적인 물관리를 이어갔다.
최근 대한민국이 AI 글로벌 허브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물 공급은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과 AI 반도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운영에 디지털 트윈 등 초격차 기술을 융합하고, 워터포지티브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자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확보된 용수는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도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충주댐은 풍부한 수자원과 대규모 발전시설, 넓은 저수면적을 가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큰 댐이다. 수력에너지와 수상태양광을 활용해 RE100과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고, 그린수소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도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충주댐은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을 넘어 에너지 대전환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고 기후대응과 첨단산업 전환,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이어가는 미래형 댐으로 새로운 40년을 이어나갈 것이다.

충주호 전경(©충주시청)





탄금호에서 진행된 물사랑 전국조정대회





GIFT

선물이 가져다준 기억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자신이 했던 착한 일을 손꼽아보던
한 어린이가 어깨를 으쓱 합니다.
“이 정도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겠지?”

그리고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듭니다.
다음날, 트리 아래 놓인 선물 상자.
포장지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아이에게는 마법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돌이켜보니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은 선물은
착한 일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설렘,
나에게 멋진 선물이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
작은 불빛처럼 남게 된 크리스마스의 기억들이죠.





어른이 된 지금도,
종종 그때의 마음을 떠올립니다.

올겨울엔 우리도 서로의 산타가 되어 보기로 해요.
말 한마디, 작은 손길, 잠깐의 배려 무엇이든
상대가 잠시라도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러다 보면 어린 시절 트리 앞에서 느꼈던 설렘이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니까요.

선물 속에 사랑을 담아







Love inside a Gift



글. 사진. 임운성 여행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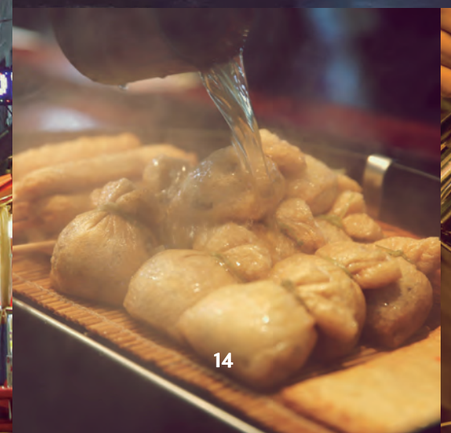
















바다가 도시를 만났을 때

진짜 부산

부산의 에너지는 바다에서 올라온다. 바다는 배경이 아니라, 도시 안으로 깊게 파고들어 사람들의 걸음과 말투, 하루의 리듬을 결정한다. 해운대와 광안리, 송도는 같은 바다처럼 보이나 즐기는 방법이 다르고, 시장통의 비릿한 냄새와 사람 냄새가 뒤섞이며 부산은 비로소 부산다워진다. 바다와 도시가 부딪히고 껴안으며 만들어낸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우리는 '진짜 부산'을 만난다.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A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116, 청사포정거장
T 051-701-5548



같은 바다 다른 즐거움

해운대 해수욕장 동쪽에 자리한 미포항은 영화 <해운대>의 주요 무대였다. 한때 수많은 어선이 정박했으나 지금은 싱싱한 해산물을 판매하는 횟집과 포장마차가 길을 채우며 활기를 더한다. 위로는 옛 동해남부선 철길을 따라 운행되는 해운대 블루라인파크가 펼쳐진다. 남해와 동해가 만나는 풍경을 천천히 감상할 수 있어, 해운대를 찾는 이들이 꼭 들르는 명소다.

열차는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로 나뉜다. 근대 전차를 닮은 해변열차는 미포정거장에서 출발해 4.8km의 선로를 따라 송정까지 이어진다. 지정좌석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망이 좋은 자리를 원한다면 조금 일찍 도착하는 편이 좋다. 종착지인 송정역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 뒤, 다시 돌아오는 열차를 이용하면 여행이 완성된다. 스카이캡슐은 해변열차보다 높은 7~10m 상공의 레일을 달린다. 2~4인승의 작은 캡슐은 연인과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다. 미포정거장에서 출발해 청사포까지 2km 구간만 운행하며,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간다.



겨울 밤바다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광안리 해수욕장이 제격이다. 차가운 해풍 속에서도 밤하늘을 수놓는 '광안리 드론라이트쇼'가 따뜻한 색감을 입힌다. 공연 시작과 함께 웅장한 음악이 해변을 가득 채우고, 광안대교는 거대한 이퀄라이저처럼 화려한 빛을 뿜으며 배경이 된다. 동시에 1,000대가 넘는 드론이 밤하늘을 비행하며 환상적인 형상을 만들어낸다. 이를 지켜보는 관람객들의 입에서는 저마다 탄성이 터져 나온다. 드론라이트쇼는 해변 어디서든 관람할 수 있지만, 해변 정중앙에 있는 도로 가장자리의 계단에 자리를 잡으면 드론이 펼치는 공중 예술과 빛나는 광안대교의 조화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동절기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와 오후 9시, 두 차례 열린다.

색다른 방식으로 바다를 즐기고 싶다면 송도해상케이블카가 답이다. 1960~1980년대 전국 최초 해상케이블카로 인기를 누리다 1988년 태풍 피해로 운영을 멈췄지만, 2017년 이전보다 4배 긴 1.62km 거리와 규모로 다시 돌아왔다. 동쪽 송림공원과 서쪽 암남공원을 잇는 이 케이블카는 최고 86m 높이에서 바다를 가로지르며,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부터 일반 캐빈까지 총 39기가 운행된다. 도시의 고층 빌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바다는 그 자체로 짜릿하다. 해가 지면 송도의 야경이 바다 위로 번지고, 케이블카는 천천히 여정을 이어간다.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의 바다가 펼쳐진다.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본 용궁구름다리, 송도구름산책로, 송도해안볼레길도 놓치기 아깝다. 특히 해안볼레길은 송도해수욕장에서 암남공원까지 이어지는 길로, 기암절벽과 바다 절경이 어우러져 도심 속 최고의 산책 코스로 꼽힌다.

광안리 드론라이트쇼

A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
T 051-610-6518

송도해상케이블카

A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171
T 051-247-9900



©한국관광공사 접형준

소란스럽고 사람 냄새 물씬한 도시 가운데

도시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엿볼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장소로 부산의 3대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 자갈치시장이 있다.

국제시장의 시작은 광복과 맞닿아 있다. 당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부산항에 모인 일본인들이 자기들의 가재도구를 싼값에 내다 팔면서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워낙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는 풍경 탓에 처음에는 '도떼기시장'이라 불렀다. 이후 큰 변화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다. 전국에서 모여든 피란민들과 더불어 군수물자, 밀수품 등이 대거 유입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국제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기계, 공구, 전기전자, 주방기구, 의류, 문구류, 침구류 등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다양한 물건을 취급한다. 특히 먹자골목은 씨앗호떡, 비빔당면, 어묵 냄새가 골목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의 시선과 후각을 잡아 끈다. 609청년몰은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개성이 살아 있어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다.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서북쪽에는 부평깡통시장이, 남쪽 바닷가에는 자갈치시장이 있다. 이름부터 재밌는 부평깡통시장은 지명인 '부평'에 한국전쟁 당시 미군 부대에서 나온 '깡통(통조림)'을 판매하면서 지금의 이름이 됐다. 이 시장이 여행객들에게 입소문 난 이유는 2013년 국내 최초로 야시장이 문을 열면서부터다. 현재는 깡통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중 먹거리가 유명하다.

자갈치시장은 부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시장이다. 이름은 굵은 '자갈'과 물고기를 뜻하는 '치'가 붙어 자갈치시장이라 부른다. 이 시장 역시 한국전쟁을 거치며 규모가 크게 확장됐다. 자갈치시장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은 활기 넘치는 '자갈치아지매'들과 싱싱한 해산물이 수북이 쌓인 좌판, 그리고 얼음을 가득 실은 손수레가 사람들 사이를 곡예 하듯 누비는 모습이다. 이 모든 요소는 부산을 찾은 여행객들이 자갈치시장을 꼭 한 번 가봐야 할 곳으로 만드는 활기찬 하모니의 주인공들이다.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횟집 거리에서는 자갈치시장만의 별미로 손꼽히는 곰장어와 고래고기를 맛볼 수 있다. 특히 연탄불에 구워 불향 가득한 곰장어는 한번 맛보면 잊지 못해 다시 찾게 되는 별미 중의 별미다.

부산의 트렌디한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전포카페거리로 향하자. 과거 공구상점이 즐비했던 전포동 일대가 지금은 개성 넘치는 카페와 공방, 이색 식당들로 재탄생했다. 무엇보다 획일적인 프랜차이즈 대신, 주인장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자기만의 메뉴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낡은 공구상점 간판과 세련된 카페 건물이 이질적이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이 거리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든다. 이 특별한 매력 덕분에 2017년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세계 여행지 52곳'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기며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했다. 지금은 카페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품샵과 식당들이 어우러져 부산 여행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라이브스튜디오




©한국관광공사 이범수



국제시장
A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시장2길 9

부평깡통시장
A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1길 48

자갈치시장
A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글. 편집실 사진 제공. 각 지자체 및 공간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더 이상 산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에 설렌다. 화려한 조명 불빛과 흩날리는 눈꽃, 산타와의 뜻밖의 만남까지! 추운 겨울날 낭만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명소들을 소개한다.



부산 크리스마스 빌리지

올겨울 부산 영화의 전당이 1만 평 규모의 산타마을로 변신한다. '크라스마스 빌리지'는 이름에 어울리는 특별한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다. '전 세계 크리스마스 선물의 수요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진 산타들이 임시로 지정해둔 공간'이라는 콘셉트 아래 여러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트리 광장이다. 8m에 육박하는 거대한 트리가 산타마을의 중심을 환화게 밝히고 있으며, 이밖에 산타들이 직접 엄선한 선물들이 있는 '산타의 보물창고', 나만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들 수 있는 체험존 '산타마을의 대장간' 등 콘셉트에 충실한 부스들이 재미를 더한다. 푸드마켓에서는 스튜, 수제 커리부어스트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메뉴를 선보인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요정'이라 불린다. 크리스마스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산타들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추억을 쌓아 보자.

A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영화의 전당
H 11. 27.(목)~12. 21.(일) 매주 목~일요일 11:00~22:00
* 12. 22.(월)~12. 25.(목) 전일 진행

서울 광화문마켓

크리스마스 시즌 서울 광화문 광장에 오면 마치 유럽 어느 마을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광화문마켓'은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 문화를 옮겨와 오감을 활용한 즐길 거리들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다. 랜드마크는 무려 15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여기에 유럽의 성으로 들어서는 듯한 웅장한 게이트와 동화 같은 분위기의 회전목마, 클래식 음악을 곁들이 호두까기 인형의 집 등 화려한 볼거리들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100여 개가 넘는 부스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울리는 수공예품, 굿즈, 먹거리 등을 만날 수 있다. 산타와의 기념 촬영을 하는 뜻밖의 행운을 누릴 수도 있다.
광화문마켓은 해가 진 뒤 더욱 황홀해진다. 눈꽃 조명과 스노우 버블이 흩날려 마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하고, 특히 주말이면 재즈 밴드, 캐럴 공연, LED 라이트쇼 등의 펼쳐져 겨울의 낭만을 더한다.

A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광화문 광장
H 12. 12.(금)~12. 31.(수) 17:30~21:30
* 12. 31.(수)는 자정까지 연장 운영







제주 바이나흐튼 크리스마스박물관

아이들에게는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곳,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곳. 제주 바이나흐튼 크리스마스박물관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이곳에서는 트리의 역사,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 씰 등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크리스마스에 얽힌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
각종 엽서, 인형, 오너먼트, 뱅쇼 등 크리스마스를 키워드로 하는 제품들이 가득하며, 빈티지한 내부 인테리어 덕분에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한 장의 그림엽서 같은 인증샷을 남길 수 있다. 박물관 내부 카페에 들르는 것도 잊지 말자. 시그니처 메뉴 '진저라떼'와 '시나몬 핫초코', '산타 쿠키' 또한 따뜻한 연말의 분위기를 더한다.
11월 말부터는 실외 정원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 따뜻한 음료 한 잔을 손에 쥐고 구경하다 보면 나만의 특별한 아이템을 찾을 수도 있다.

A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654
H 매일 10:30~18:00
* 크리스마스 마켓: 11. 22.(토)~12. 25.(목) 16:00~20:00

크리스마스 명소

봉화 분천산타마을

봉화 분천산타마을은 365일 날마다 크리스마스인 마을이다. '한국의 시베리아'라고 불릴 정도로 겨울이 긴 봉화에서도 첩첩산중 산골에 위치한 분천역은 겨우내 설국의 풍경을 자랑한다. 겹겹이 둘러싼 산자락과 옹기종기 모인 빨간 지붕의 건물은 단번에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게 만든다. 이 점을 살려 '분천산타마을'이라는 이색적인 마을로 조성했다.
빨간색과 초록색이 어우러진 분천역 대합실에서는 썰매를 끌며 달려가는 귀여운 루돌프 조형물이 산타마을의 초입을 알린다. 여름철 휴가룩을 한 익살스러운 산타의 모습도 보인다. 산타우체국에서는 편지를 보내면 일 년 뒤 크리스마스에 도착한다고 한다.
분천산타마을을 색다르게 즐기고 싶다면 백두대간 협곡열차인 V-Train에 몸을 실어 보자. 백두대간의 협곡 사이를 기차를 타고 가로지르며 썰매를 타고 달리는 산타의 기분을 느껴볼 수 있다.

A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길 49, 분천역 일원


©경북나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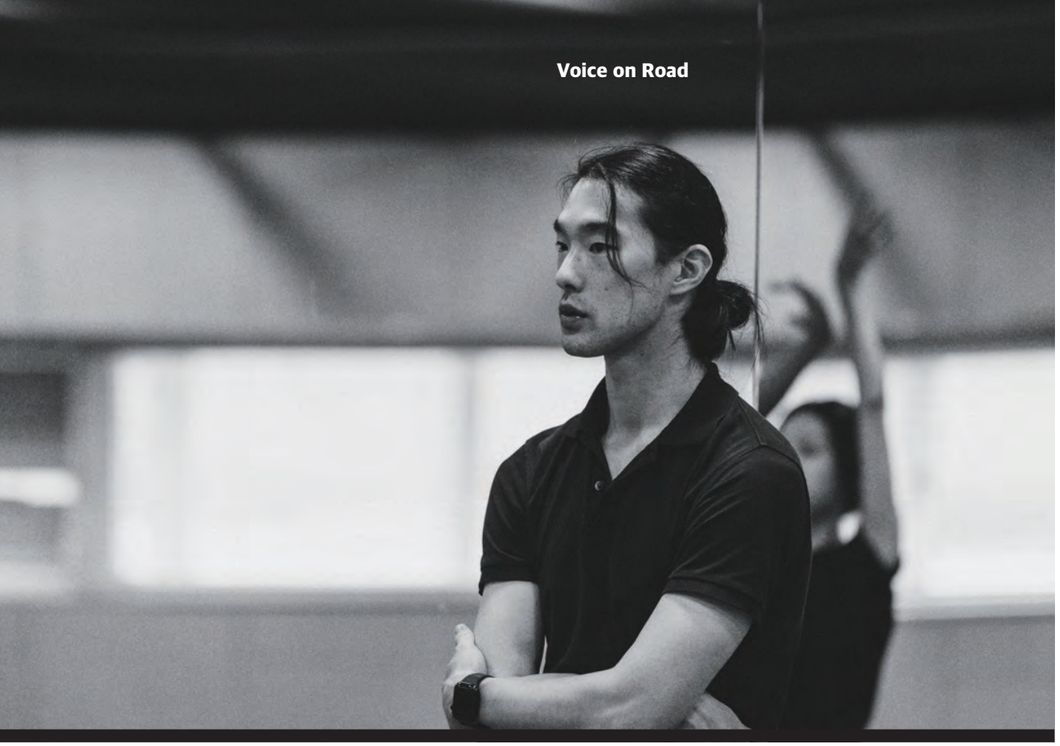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이주호

늦게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굳건히 자신의 길을 지키고 있고,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곳에서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한 무용수 이주호. 그의 몸짓은 오늘을 기록하는 또 하나의 언어이다. 그가 무대에 새기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본다.

춤으로 새기는 몸의 언어



무용수 이주호



무대 대신 운동장을 휩쓸던 소년

공연장의 모든 불이 꺼지자 소란하던 관객석에 적막이 내려앉는다. 무대를 향해 핀 조명이 떨어지고, 그 아래로 등장한 무용수의 곱고 섬세한 몸짓에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국립발레단을 거쳐 해외 유수의 발레단을 섭렵하며 무대를 누비고 있는 이주호 무용수. 그러나 중학생 때까지 그가 누비던 곳은 무대가 아닌 운동장이었다.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틈만 나면 운동장을 뛰어 다녔어요. 실력도 제법 좋았어요. 체육 선생님께서 '너 선수해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그가 어쩌다 운동선수가 아니라 발레리노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부산예술고등학교에서 '몸 잘 쓰고 키가 큰 학생'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학교 선생님들은 단번에 '이주호 학생'을 추천했다.

"'무용'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어요. '발레리노'라는 단어도 직업보다는 가요 제목으로 더 익숙했죠. 그런데도 예고로 진학한 건 사실 모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무용을 하면 몸 선이 예뻐지고, 몸을 쓰는 법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예고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초등학교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친구들의 실력과 중학교 3학년 때 급하게 발레를 시작한 자신의 실력은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에겐 무용수에게 가장 필요한 재능 하나가 있었다. 바로 '끈기'다. 음악성, 유연성, 표현력, 예술성 등 발레리노에게 필요한 재능이 많은데, 결국 무엇이 부족하더라도 집요하게 갈고 닦을 힘이 있다면 언젠가 빛이 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끈기'라는 힘이 있었다.

질투는 나의 힘

또 한 가지, 이 무용수에게 기폭제가 되어준 건 '질투'였다. "어느 날 무용에 엄청나게 진심인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무용을 대하는 태도도 진중하고,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과 친구들의 관심이 그 친구에게 쏠리는 거예요. 사실 남자 무용수가 몇 없다 보니 제가 조금만 잘해도 칭찬을 받았었거든요. 관심이 빼앗기니 질투가 났죠(웃음)."

슬슬 승부욕이 발동됐다. '나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마음으로 연습량을 늘여갔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연습실에만 박혀있기도 했다. 친구와 선의의 경쟁은 물론, 어제의 나에게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연습에 매진하다 보니 실력이 오르는 건 물론이고, 결국 재미까지 붙게 됐다고.

질투와 승부욕을 동력 삼았던 이 무용수는 예술을 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 꿈꾼다는 한국예술종합학교로 진학했고, 이후 국립발레단, 홍콩발레단, 에스토니아 국립 바네무이네 발레단 등을 종횡무진하며 무용수로서의 커리어를 쌓아 나갔다.

항상 더 넓은 곳을,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던 그가 선택한 다음 스텝은 뜻밖이었다. 바로 고향 부산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무용수로서 커리어가 탄탄하게 쌓일수록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나의 뿌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시기에 프랑스 파리의 어느 공원에서 아이들이 춤과 노래를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너무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부산의 아이들도 함께 느끼면 좋겠다 싶어서 고향으로 오게 되었어요."

예술 생태계를 고민하는 감독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무용수는 지역 예술단체 '부산아이디발레단'을 창단하여 음악감독으로 제2막을 열었다. 무용수가 몸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이라면, 감독은 메시지를 작품으로 담아내는 사람이다. 그는 음악감독으로서 언제나 '지금'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 펼치고자 한다. 요즘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연과 도시의 조화다.





"조카가 올챙이를 본 적이 없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냇가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올챙이는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풍경도 몇 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클래식과 컨템포러리가 한 무대에 공존하는 <철근 위의 백조>이다. 그는 자연과 도시, 보존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에 전자음을 더했다. 또 직선적인 철근 구조물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몸의 선들을 활용하여 확실한 대비를 만들었다. 이 작품으로 그는 지난 4월 열린 제34회 부산무용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무용수는 앞으로 예술 생태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고민하고 있다. 먼저 관객에게는 '쉬운 무용'을 보여주고 싶단다. "메시지를 심층적으로 담아내거나 비틀어 풍자하는 방식도 좋지만, 저는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무용을 어려운 예술이라 생각하는데, 무용도 충분히 쉽고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좋다'거나 '재미있다'라고 느껴지는 감정, 그거면 돼요."

무용수들에게는 무용의 가치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하고 싶다고 했다. 결국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오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의 가치'를 스스로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모두가 무용을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무대를 고민한다.



The Kit

글. 편집실　그림. Rosy

오늘은 내가 산타

설렘을 담은 크리스마스 선물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센스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찾는다면
올해는 '이 아이템'을 준비해 보자.

크리스마스 트리의 대변신
오너먼트

예전에는 빨간 지팡이나 하얀 눈송이, 금빛 또는 은빛의 별 등이 트리 오너먼트의 기본이었지만, 최근에는 곰 인형, 유리볼 등 작지만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아이템들이 많다. 취향이 뚜렷하게 담긴 오너먼트로 자신만의 트리를 꾸밀 수도 있고, 매해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바꾸어볼 수도 있다.



동심으로 초대합니다
팝업 엽서

연말 시즌에는 엽서 한 장도 특별하게 골라 보자. 평범한 카드 대신 팝업 엽서를 선택하면, 마음과 동시에 동심을 선물할 수 있다. 눈 쌓인 마을, 썰매를 끄는 루돌프, 선물꾸러미를 든 산타클로스 등 엽서를 여는 순간 등장하는 크리스마스의 한 장면에 미소가 떠오를 것이다.





행복을 기원하는 겨울의 부적
크리스마스 리스

푸른 솔잎으로 엮어 만든 동그란 크리스마스 리스에는 '환영', '희망', '새로운 시작'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 겨울날의 부적과도 같은 크리스마스 리스는 직접 만들어 선물하기에도 좋다. 솔 가지나 유칼립투스를 활용하여 원형으로 엮기만 하면 끝! 목화나 솔방울, 리본 등을 달아 포인트를 주면 근사한 크리스마스 리스가 완성된다.



하루에 딱 한 조각
슈톨렌

화려하고 예쁜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이에서 투박하게 생긴 빵 '슈톨렌'이 부쩍 인기를 얻고 있다. 슈톨렌은 독일의 전통 크리스마스 빵으로 말린 과일과 견과류 등을 듬뿍 넣어 구워 풍미가 짙다.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한 달 앞두고 하루에 한 조각씩 빵을 잘라 먹으며 12월 25일을 기다렸다고 한다. 이 빵은 크리스마스까지 아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보존성이 뛰어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맛이 깊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설렘
어드벤트 캘린더

'어드벤트 캘린더'란 12월 1일부터 2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달력이다. 날짜마다 작은 선물이 숨겨져 있어 하루에 하나씩 칸을 열어보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즐거움을 준다. 캘린더 종류에 따라 과자, 화장품, 퍼즐 조각 등 만날 수 있는 선물은 다양하다. 덕분에 12월 한 달 내 기분 좋은 설렘이 가득해진다.





1. 자연 소재 활용하기

포장지를 마끈이나 리본으로 장식한 다음 나뭇가지, 솔방울, 말린 오렌지 조각 등을 하나 꽂아주면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2. 리본 위치에 따른 분위기 연출

선물을 포장할 때는 리본이 정가운데 오는 것이 기본이지만, 살짝 윗면으로 옮기면 세련된 인상을, 아래쪽에 오도록 조정하면 풍성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글. 조수빈



잊을 수 없는 독특함

포트와인

'포트와인'은 브랜디를 첨가하여 녹진하고 달달한 맛에 18~20도 정도로 높은 도수가 특징이다. 포트와인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 백년 전쟁이 있다. 백년전쟁에서 영국이 프랑스에 패배하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 영토를 잃게 됐다. 그중 한 곳이 와인 산지로 유명한 보르도였다. 보르도 와인을 구하기 힘들어진 영국은 런던에서 가까운 포르투갈에서 와인을 공급하기에 나섰다. 그러나 무더운 여름날, 포르투갈에서 영국까지 와인을 운송하는 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맛과 향의 변질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도수 높은 브랜디를 와인에 첨가하게 됐고, 이것이 현재 포트와인의 시초이다.

포트와인은 개봉 후에도 비교적 오래 보관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즐기며 음미하기에 좋은 와인이다. 또한, 풍미가 깊고 단맛이 강하며, 과일 향과 견과류 맛이 진해 디저트 와인으로 내기에 좋다.

자연이 주는 달콤한 선물 와인



'아이스와인'은 겨울철 포도가 얼기를 기다렸다가 수확한 다음 양조한 와인이다. 낮은 기온으로 인해 포도알 속 수분이 얼음이 되어 떨어져 나가고, 남은 당분이 농축되면서 극대화된 단맛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아이스와인은 다른 와인에 비해 양이 적고 비싸다. 대부분의 와인 생산지는 기후가 온화하기에 수확 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포도가 얼지 않는 데다 수확할 때도 언 포도가 녹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까다로운 생산 조건으로 인해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의 특정 지역만이 아이스와인 생산지로 유명하다.

뛰어난 품질의 아이스와인은 균형 잡힌 단맛과 산미를 가지고 있으며, 페어링 음식으로는 단맛이 강하지 않은 다크 초콜릿, 치즈 등을 추천한다.

겨울이 주는 극도의 달콤함

아이스와인

자유로운 맛과 향

내추럴와인



내추럴와인이란 포도 재배부터 양조 과정까지 화학비료나 첨가물을 일절 넣지 않은, 말 그대로 자연친화적인 와인을 말한다. 와인 제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지키는 규정을 따르기보다 와인을 생산하는 사람 개개인의 철학과 개성이 반영된다. 보다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맛과 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내추럴와인은 정제나 여과되지 않은 채로 병에 옮겨 담기 때문에 침전물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취향에 따라 디캔팅하거나 침전물을 섞어 즐기면 된다. 대체로 일반 와인보다는 혀를 감싸는 타닌감이 적고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생선이나 해산물 요리에 잘 어울린다.

땅과 햇살, 바람, 기다림의 시간이 만들어낸 와인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낸다. 한 해의 끝자락,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에 어울리는 한 잔, 와인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입안에서 터지는 상큼한 탄산

스파클링 와인



와인은 탄산의 유무에 따라 '스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으로 나뉜다. 스파클링 와인은 잔에 따르면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발포성 와인이다. 생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마구 흔든 후 축포를 쏘듯 코르크 마개를 뻥 터트리는 것을 '샴페인'이라 통칭하여 부르는 경우가 많으나, 엄밀히 말하면 '샴페인'은 프랑스 상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의 이름일 뿐, 이탈리아의 '스푸만테', 스페인의 '까바', 독일의 '젝트' 등 각 나라와 지역마다 스파클링 와인을 부르는 이름은 다르다.

스틸 와인과 달리 스파클링 와인은 특별한 안주 없이 그냥 먹어도 부담이 없으며, 한 잔 마실 때 입을 간지럽히는 기포 덕분에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마시기 좋다.

우리가 주고받은 Gift 를 말하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서로를 향해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작은 선물을 주고받을 일이 많은 연말.
누군가는 자신의 재능으로, 누군가는 따뜻한 손길로, 누군가는 화끈하게 플렉스하여 웃음을 피운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주고받아온 선물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

응답자 수 315명

선물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44.8%
쓸모 있어야 진짜 선물!
실용성

36.8%
확신의 취향 저격템
센스

13%
진심이 중요
마음

4.1%
현실적인 한도 내에서
예산

2.3%
기타
(내 돈으로 사기 아까운 것)

내가 더 받고 싶은 선물은?

VS

69.5%
100만 원 상당의 고급 명품

명품을 줬다는 건?
마음을 썼다는 것!

도시관리처 엄지훈

100만 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선물이니까

태백권지사 김유리

30.5%
돈으로 살 수 없는 손편지, 앨범

선물을 준비하는데 쏟았을 시간과 정성이 더 값지다

디지털관리처 김금주

명품은 나도 용기만 내면 살 수 있다, 하지만 정성은 못산다

전남서남권지사 최윤식

마음은 고맙지만 '이 선물'은 조금 곤란할지도?

37.1%
과하게 큰 선물

26.7%
취향에 맞지 않는 아이템

21.9%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

13%
DIY 키트

0.8%
기타
(아이스크림 케이크, 무엇이든 좋음 등)

산타에게 꼭 받고 싶은 선물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 행복한 71억 / 엔비○○ 1000주 / 남자친구 / 한강뷰 아파트 / 가족과의 시간 / 자유여행권 / 방울이 굿즈 / 유머감각

뽐내고 싶은 나의 재능은?

35.9%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공감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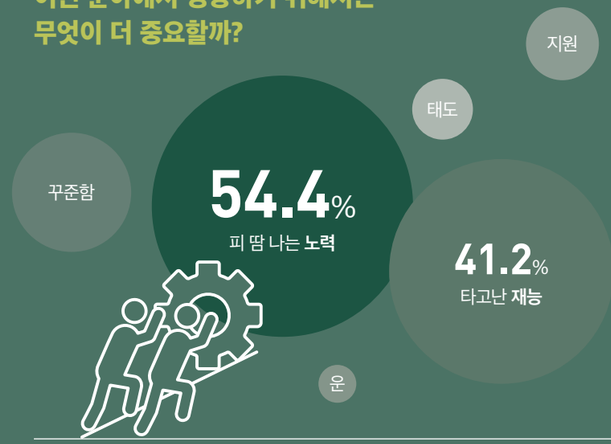
23.2%
깔끔하게 정돈하고 계획 세우는 능력

21.3%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분위기메이커

17.5%
만들고, 꾸미고, 요리하고! 손재주

2.1%
기타(악기 연주 능력, 작물 키우는 능력 등)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중요할까?



누군가의 재능 중 탐나는 것

우리 부서 양 대리님의 누구나 만족시키는 점심메뉴 결정 센스!

수자원사업처 김민진

어디서나 잘 자는 친구의 숙면(?) 능력

예천수도지사 송인휘

정확한 발음의 표준어 구사 능력

거제권지사 서덕영

처음 본 사람과도 뚝딱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

천안권지사 고청희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의 절제력!

고령권지사 권혁상

오버하지 않고 딱 적당선만큼 상대를 칭찬하는 능력

낙동강사업처 신익화



글. 이윤형 인지심리학자(영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자기 오해의 인지 심리학:

재능 부족이라는 착시

바야흐로 한류가 세계를 휩쓰는 시대다. BTS와 블랙핑크 같은 K-팝 아티스트부터, 맨해튼에서 성공을 거둔 한식 셰프들, 글로벌 OTT 플랫폼을 장악한 한국 드라마·영화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재능이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장면 속에서 많은 한국인들은 문득 "나도 같은 한국 사람인데, 왜 나는 저런 재능이 없을까?" 하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할 뿐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재능이 없다'라는 판단은 개인의 능력의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기반한다. 이는 인간의 인지 구조가 원래 절댓값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서툴고, 두 항목 간의 상대적 차이를 구분하는 데 훨씬 더 능숙하기 때문이다. 인지심리학 실험에서도 사람들은 절대적 무게, 밝기, 길이 등을 맞추라고 하면 오류가 크지만, 두 자극을 비교하게 하면 아주 작은 차이도 민감하게 구분한다.

이러한 특성은 자기 평가에도 그대로 작용한다.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남보다 낫다/못하다'는 판단은 즉각적이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중·고등학교 내신, 수능 등 오랜 시간 상대평가 체제에 익숙해져 있어, 남과의 비교 민감성이 더욱 강화되어 있다. 그 결과, '재능이 없다'는 생각은 자신의 실제 능력의 결핍을 반영하기 보다는 주변보다 나은가 못한가에 대한 인지적 판단의 결과에 가깝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기준(상향 비교)으로 삼는다. 상향 비교는 동기를 높여주고 노력을 하여 성취를 이루게 할 수 있지만, 지나치면 자기 비하와 무력감을 낳는다. 특히 SNS는 상향 비교를 극단화 시킨다. 사람들은 'SNS'가 자신의 최고의 순간을 모아서 보여주는 곳이란 걸 잘 알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일상과 다른 사람들의 최고의 순간을 비교하게 된다. 재능이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평한 비교만으로도 가혹한데, 타인의 최고의 순간을 기준으로 삼으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또한, 우리의 인지체계는 부정적 정보에 더욱 민감하다. 이는 위험을 빠르게 탐지하도록 하여 생존에 유리하게 하지만, 자신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쉽게 떠올리며, 긍정적 피드백보다는 부정적 피드백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래 기억한다. 즉, 약점은 잘 떠올리는데 장점은 좀처럼 찾지 못한다. 나는 이렇게 약점이 많아 불안하고 두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잘 해낸다. 내가 경험한 실수와 결점은 다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과 성취만 보인다. 이와 같은 부정적 편향과 자신과 타인의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은 남을 과대평가하고 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만들어 '나는 남들에 비해 특별한 재능이 없다'라는 인식을 강화한다.

'남보다 잘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활동에 자연스럽게 몰입하는가?'를 묻고, 현재의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할지를 판단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고민해보자. '재능이 없다'라는 판단의 상당 부분은 실제 능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인간 인지의 특성—상대 비교의 습관, 상향 비교의 경향, 부정성 편향, 정보 비대칭—이 만들어낸 착시이다. 또한 재능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의 흥미와 경험,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특질이므로, 남보다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의존하는 상대 비교에서 벗어나 비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 비교를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인 메타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키워야 한다. 재능을 발견하는 과정은 타고난 차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내가 잘하는 행동, 나의 흥미, 내가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남보다 잘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활동에 자연스럽게 몰입하는가?'를 묻고, 현재의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할지를 판단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IQ보다 메타인지의 정확성, 즉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능력이 학업의 성취와 더 관련이 깊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이 '재능'의 기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남과의 비교는 나의 재능을 감추지만, 메타인지를 통해 나의 경험과 감정을 관찰하고,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성장시키는지 이해하는 것은 숨겨진 나의 재능을 점점 더 드러나게 할 것이다.

Talk with

글. 조수빈 사진. 이동진

사랑이 없는 세상의 어떤 모습일까. 빛은 바래고, 온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랑은 있다.
가장 단순하지만, 그래서 잊기 쉬운 감정을 노래하는 가수 경서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을 선물했다.

달콤한 목소리로 전하는 사랑 이야기

가수 경서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목소리

지난 11월 5일 안동 세계물기념포럼센터에서 가수 경서의 목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잔잔히 퍼졌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모인 이곳에서 경서는 한 해 동안 수고한 이들을 위해 따뜻한 노래로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반짝이는 햇살 사이로 스며든 그의 목소리에 직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귀를 기울였다.

2020년, <밤하늘의 별을>이라는 곡으로 샛별처럼 등장한 가수 경서.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 '가수 경서'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는 데뷔곡 단 하나만으로 음악방송부터 음원차트까지 모조리 휩쓸며 '음원 강자'로 떠올랐다.

"<밤하늘의 별을>이라는 노래는 제가 데뷔하기 딱 10년 전의 노래예요. 당시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를 제 목소리로 다시 부를 수 있어서 설렜죠. 동시에 원곡에 못 미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그는 단숨에 대중을 사로잡은 비결에 대해 원곡의 힘이 있었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실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건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서정적인 감성에서 비롯된 힘이 더 유효했을 테다.

이후 경서는 자신의 색깔을 이어가기 위해 꾸준히 앨범 작업을 해 왔다. 데뷔곡에 이어 박기영의 <시작>,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등의 리메이크 곡은 물론, 옛 연인을 추억하는 <나의 X에게>, 청춘의 몽글몽글한 마음을 담아낸 <고백연습>,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쫓아가는 <내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 그리고 한층 성숙한 감정을 담은 <ONGOING>에 이르기까지. 그의 음악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데뷔 후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려온 이유는, 노래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키워드는 '사랑'이다. 경서에게 사랑이란 많은 감정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다.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왜, 사랑을 할 때는 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그 감각을 점점 잃어버려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안에는 항상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난 10월에 발표한 신곡 <사랑만 해두자> 역시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골몰하며 부른 노래다.





경서의 노래는 마음 속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감정을 건드린다. 그의 노래를 듣다 문득 미소가 떠오르는 이유는 잊고 있던 '사랑'을 다정하게 깨워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따뜻한 선율 속에 깃든 메시지는 분명하게 속삭이고 있다. 연인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사랑을 하자고.

데뷔와 동시에 '음원 강자' 타이틀을 얻었어요. <밤하늘의 별을>이라는 곡으로 큰 사랑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원곡이 워낙 명곡이라 인기를 조금은 기대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전혀요. 저도, 회사도,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웃음). 데뷔곡으로 <밤하늘의 별을>이라는 곡을 리메이크하게 된 건 저에게 그저 영광이었죠. 잘 될 거라는 예상보다는 오히려 걱정이 됐어요.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다 보니, 대중들이 제 목소리로 해석한 노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다행히 발매와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얼떨떨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와!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좋아해주는구나!' 싶어 신기하고 안도했던 기억이 나네요.

후속곡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 같아요.

데뷔곡이 큰 사랑을 받은 만큼 대중들의 기대가 높은 상태다 보니 부담이 왜 안됐겠어요. 당시에도 '다음 곡에 대한 부담이 없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기분 좋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을 했었어요. 일부러 그 긴장감을 '설렘'으로 느끼려고 노력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기분 좋은 부담'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경서'라는 가수에 대해 궁금해 하고, 어떤 노래를 가지고 나올지 기대하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지난 10월 신곡 <사랑만 해두자>를 발표하셨어요. 신곡을 준비하는 동안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요. 고민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노래를 부르기 전, 가창자로서 곡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스며들기 위해 가사를 두고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가사를 곱씹다 보니 '사랑이 뭘까?', '이 세상에 사랑이 필요할까?', '사랑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같은 질문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니 나보다 타인을 더 생각하게 되는 마음이 사랑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라는 다소 극단적인 질문을 스스로 해보기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고민 없이 '응!'을 외치게 되더라고요. 무언가를 위해 망설이지 않고 달려드는 마음이야 말로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사랑이 왜 필요할까요…. 그건 아직 해답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랑이 없어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방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들은 사라지고, 감정들은 길을 잃고, 어떤 일들은 의미나 목적을 상실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단지 잊고 살 뿐이죠.





경서 씨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많은 사람인가요?

네. 저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까지 제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늘 가슴 한편에 있어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요!

<밤하늘의 별을>, <넌 내꺼야>, <나의 X에게>까지. 노래 속에 경서 씨만의 확실한 색깔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 표현하고 싶은 색깔이 있다면요?

예전에는 푸른색이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화지'이고 싶어요. 특정한 색깔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색이든 받아내고 표현할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도화지'라는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한마디로, 무엇이든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 욕심이에요(웃음)!

이번 호 주제가 'Gift' 인데요. 사람들에게 딱 한 곡의 노래만 선물하고 싶다면, 어떤 노래를 주고 싶나요?

제 노래를 선물해야겠죠? 현재 제가 가장 애정하고 있는 곡인 <사랑만 해두자>를 선물하고 싶어요. 이 노래는 가사가 참 예쁜데요. 특히 '사랑하자. 아픔들 없이 사랑만 해두자. 기억하자. 다시는 없을 눈부신 날들. 별일 아닐 거야. 다 괜찮을 거야. 우리는 계속 사랑하기만 하자.'라는 부분을 참 좋아해요. 사실 어떤 아픔이나 걱정 없이 사랑만 하자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이 노래를 부를 때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라요. 저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고요.
<사랑만 해두자>라는 곡이라면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서 씨는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친구 같은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사실 어떤 아티스트가 좋은 아티스트일까라는 질문을 생각할 때마다 답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나 변치 않는 건 사람들 곁에 늘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제 노래가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로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거든요. 그들에게 슬픔을 숨겨 주는, 힘들 때 기대고 싶은, 기쁨을 나누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수타벅스가 간다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영상. 이덕재



함께 써 내려간 첫 페이지
낙동강동부사업단

**지난해 12월 신설된 낙동강동부사업단은 새로운 조직으로서 기반을 다지고,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서로를 믿고 전력으로 달려 나간지 어느덧 일 년.
낙동강동부사업단의 지난 1년에 박수를 보내기 위해 수타벅스가 출발했다.**



우리가 하나의 팀이 되기까지

영남지방의 젖줄 낙동강 유역은 대형 건설사업 중 40%가량이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낙동강 유역의 건설사업이 빠르게 확대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감독원과 철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낙동강 유역 최초의 건설 전담부서 '낙동강동부사업단'이 신설됐다. 올해로 출범 1년을 맞은 낙동강동부사업단은 수자원·수도 분야 총 10개 건설사업에 대한 감독, 계약관리, 설계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박선미 차장은 낙동강동부사업단 출범 당시를 '어색함'과 '설렘'이라는 단어로 떠올렸다. "사업단 신설 초기에는 직원들이 4개 지역에 흩어져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 2월 5일, 울주군에 위치한 사무실로 이사하면서 처음으로 모든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죠. 처음엔 좀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짐을 옮기고 자리를 배치하다 보니 새로운 출발이라는 생각에 설레더라고요."

신설 부서인 만큼, 낙동강동부사업단은 올 한 해 조기 안정화를 위해 힘을 쏟았다. 또한, 여러 현장을 다루는 만큼 '중대재해 제로'라는 뚜렷한 목표를 세웠다. 고민과 부담도 많았지만, 모든 직원들과 감독원들이 적극적으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안전대책을 위해 소통을 해 온 덕분에 일 년을 무사히 건너올 수 있었다.



서로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은 지난 1년간 전력으로 달려온 서로를 격려하고 싶었단다. 노진형 과장과 박선미 차장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지난 4월부터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수타벅스 신청 버튼을 눌렀고, 두 사람의 꾸준한 노력 끝에 드디어 2025년 마지막 수타벅스가 낙동강동부사업단으로 향했다.





수타벅스도 최선을 다해 프로처럼 즐기자

낙동강동부사업단이 출범한 지 딱 일 년이 되는 시기에 찾아온 수타벅스는 직원들에게 더 의미 깊은 하루를 선물하게 되었다. 수타벅스 방문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노진형 과장은 "역시 칠전팔기! 수타벅스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커피와 간식도 좋지만, 직원들과 함께할 시간이 가장 기대됐어요. 또 이번을 기회로 K-water 동료들에게 우리 사업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라며 기쁨을 드러냈다.

볕이 따스하던 11월의 어느 날, 낙동강동부사업단 직원들은 수타벅스 이벤트를 앞두고 어떤 음료를 마실지, 간식은 몇 번이나 리필할지, 인증샷은 어떻게 남길지 등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점심을 많이 먹어서 간식은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노릇하게 튀겨지는 닭강정의 고소한 냄새에 직원들은 이끌리듯 수타벅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4월 동료들과의 단합을 위해 벚꽃 나들이를 갔던 적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그때의 기분이 느껴진 것 같아요!"라는 이수현 과장의 말에 제보민 사원은 "수타벅스 덕분에 다 같이 모여 오랜만에 이야기도 나누고 웃을 수 있었어요. 입사 이래 가장 즐거운 금요일이에요!"라며 맞장구쳤다.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이들을 보니 낙동강동부사업단이 1년 만에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을 알 것 같았다. 동료애가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임태환 단장은 "낙동강동부사업단에는 저연차 직원들이 많아요. 미래의 K-water를 이끌 인재들이죠. 지금처럼 늘 탐구하는 자세로 정진하여 멋진 K-water인이 되길 바라요."라며 사업단의 수장이자 선배로서 따뜻한 응원을 건넸다.

업무뿐만 아니라 팀워크까지 탄탄하게 성장해 온 낙동강동부사업단. 낙동강의 세찬 물줄기처럼 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만들어갈 다음 이야기가 더욱 기대된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수타벅스와 함께한 낙동강동부사업단의 즐거운 모습을 만나보세요.

Mini-Interview



임태환 단장

낙동강동부사업단 단장으로 온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건설사업의 책임자로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사업단 직원들, 감독원들과 함께 힘을 모은 덕분에 1년을 잘 보낸 것 같아요. 함께해서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2025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노진형 과장

연초부터 꾸준히 수타벅스 신청을 했는데 드디어 우리 사업단에 행운이 왔네요! 업무로 고생이 많은 직원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는 동시에, K-water 동료들에게 우리 사업단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일도 화합도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직원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이수현 과장

현장 감독 지원을 나갔던 적이 있는데, 덥고 추운 현장을 오가며 감독 업무하랴, 사무실에 돌아와 또 맡은 업무를 다하랴 정신이 없더라고요. 동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어요. 모두 항상 고생이 많고, 여러분이 가장 멋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글. K-water연구원 참고자료. 『Water & Tech INSIGHT』(10월호)

정책과 투자 결정의 새로운 변수 기후비용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물적 손실을 넘어 기후적응 투자 지연, 사전 대응 부족으로 인한 추가 손실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비용'은 이제 정책 결정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미래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기후비용'을 이야기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비용의 정의

기후비용이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손실 전반과 이를 완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대응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실제로 측정 가능한 비용뿐만 아니라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사회 전체의 영향, 그리고 미래 세대에 전가될 잠재적 비용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기후비용은 단지 현재의 손실을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 위험관리의 지표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기후비용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 재난 예방을 위한 적응 비용, 그리고 대응 지연으로 인해 누적되는 무대응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 왔는데, 특히 무대응 비용은 단순히 투자비용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누적 손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제기된 개념이다.

이러한 논의는 1970~80년대 시작된 탄소의 최적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했으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확산을 거쳐 현재의 기후비용 담론으로 이어졌다.

미국 예일대학교 노드하우스(W. Nordhaus) 교수는 기후경제 모델을 통해 기후변화를 경제적으로 정량화하며, 실제 기후 변화의 영향이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그의 기후경제 모델인 DICE(Dynamic Integrated Climate-Economy)는 '기후변화'라는 제약 요인을 경제성장 모형에 결합해 기후변화가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수치화하고, 최적의 소비와 성장 경로를 제시한 모델이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기후비용의 범위는 단순한 탄소 배출 피해를 넘어 재난 복구비용, 사회·경제 인프라의 파손, 금융시장 불안정, 기후적응·저감 투자비용 등으로 확대됐다. 현재 기후비용은 학문적 개념을 넘어 재정·투자 평가와 정책 결정 과정의 핵심 변수이자 판단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기후비용의 정책 내재화를 위한 국제적 흐름

2023년 우리나라의 집중호우, 2024년 유럽의 폭염, 2025년의 텍사스 대홍수 등 연달아 발생한 범지구적 기후재난으로 인해 기후비용을 정책 전반에 내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기후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정책·투자 의사결정 과정은 기후위기 대응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에 따라 기후비용은 재정 및 투자 판단의 필수요소로 빠르게 부상했다. 특히 텍사스 대홍수는 정책적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적 전환의 신호탄이었다.

국제기구 역시 기후위험의 재정·투자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IMF는 인프라 투자, 재정사업, 국제 원조사업 등 모든 공공·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평가에 기후위험 요인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예를 들어, 도로나 건설사업의 비용 산정 시 단순 건설비뿐 아니라 기후재해 발생 확률에 따른 보수·복구 비용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기후행동과 경제성장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며, 기후 리스크가 재정·투자·프로젝트 평가 프레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도적·절차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비용의 구성항목

직접 손실
폭우, 홍수, 화재 등에 따른 인명·재산 손실 등

간접 손실
노동력 상실, 이주 비용, 지역경제 위축 등

적응 비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 보강, 방재설비 확충 등

무대응 비용
대응 지연 또는 미이행 시 피해 확대 및 복구비용 증가 등



한편,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지구 평균기온이 3℃ 상승할 경우, GDP의 8%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기후 리스크를 정부 재정 리스크 관리체계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금융안정위원회(FSB) 또한 기후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자산평가와 대출 의사결정이 시스템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후 리스크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기후비용 관점에서 바라본 텍사스 대홍수

앞서 언급한 2025 텍사스 대홍수를 기후비용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시사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지난 7월 중부 텍사스 전역에서 정체전선에 의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대홍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와 광범위한 재산 손실이 뒤따랐으며, 미국 재무부는 직·간접 손실 규모를 약 25~28조 원으로 추산했다.

기후비용 관점의 텍사스 대홍수 피해

직접 손실

- **인명 피해** 최소 130명 이상 사망, 30만 명 이상 긴급 대피
- **물리적 피해** 주택·상가 침수파손, 도로 침수 등 교통·물류 전반 마비
- **대응 비용** 주방위군 투입, 구조활동 및 물자지원, 임시대피소 운영

간접 손실

- **경제활동 차질** 농업·관광산업 타격, 휴교 및 기업 조업 중단 등
- **공급망 영향** 석유·화학단지 일부 생산 차질 및 물류 지연
- **사회적 비용** 보험금 지급 급증, 금융부담 증가, 부동산 가치 하락

적응 비용

- **방재 인프라 확충** 과달루페강 유역 저류지 확충, 교량·도로 재설계
- **경보·대피체계 개선** 수문관측망 고도화, 긴급경보 체계 점검 및 개선

무대응 비용

- **토지·도시 개발** 불투수면 증가, 홍수 위험지대 내 도심 개발로 피해 확대
- **시스템 개선** 홍수경보시스템 개선 지연으로 경보전달 실패, 인명피해 확대

기후비용 관점에서 보면 이 피해는 단순한 홍수 피해액만으로 볼 수 없다. 방재 인프라 확충 등의 적응 비용, 기후변화를 간과한 개발 행위가 초래한 무대응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피해 규모는 추산치를 훨씬 넘을 가능성이 크다.

표면적으로는 텍사스가 급경사 지형, 낮은 투수성 토양 등 집중호우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 홍수 예·경보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후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적 판단이 누적되면서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후비용 내재화를 위한 정책·투자 프레임 전환

이처럼 기후비용을 고려한 정책·투자 의사결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거시경제 지표로서의 기후비용을 내재화해야 한다. 기후비용을 단순한 외부효과나 잠재적 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국가 재정 정책의 핵심 지표로 설정하여 재정·경제 정책 평가 프레임워크 전반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인프라 투자 의사결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은 단기 건설비용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기후비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기후비용을 '순비용 증가'가 아닌 장기적 비용 절감 전략으로 인식하며, 재정사업 평가 기준과 타당성 조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셋째, 기후변화 적응 투자를 미래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투자로 바라보아야 한다. 인프라 확충, 조기경보 체계 개선 등은 당장의 지출이 아니라 기후재난 발생 시 무대응 비용을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정성과 국제공조 의제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기후비용은 재난관리 차원을 넘어 금융기관의 자산평가, 대출정책, 국가 재정 리스크 관리로 연결되는 금융안정의 핵심 의제다. 이에 따라 자본규제와 공시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파리협정·FSB·IMF·OECD·MDB 등 국제사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국제 표준·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후비용의 내재화는 단순히 환경정책의 확장이 아니라 국가 재정·경제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축으로서,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것이다.

글. 편집실 사진. 한국수자원공사

AI 물관리 세계 1위 기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창립 58주년 기념식

한국수자원공사가 창립 58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AI 중심의 물관리 혁신을 통해 글로벌 물산업의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자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AI 전환으로 물기업 역량을 한 층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AI 기반 물관리 혁신을 위한 비전 선포

지난 11월 13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창립 58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AI 물관리 세계 1위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2030년까지 AI 물관리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비전은 물관리 AI 대전환의 전사적 실행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글로벌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60년 경험을 1초로 압축: AI가 만드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라는 슬로건 아래, AI 기반 초연결 업무환경 구축(업무혁신), AI 자율운영형 물관리 인프라 실현(시설혁신), 글로벌 집단 지성 생태계 조성(역량혁신) 등 AI First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전략목표를 수립했다.

그간 한국수자원공사는 글로벌 물기업으로서 AI 물관리 분야에서 기술력을 입증해왔다. 특히, AI 정수장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글로벌 등대로 선정된데 이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공인하는 글로벌 표준기술 승인 단계에 진입했다. 더불어 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술은 사우디, 일본에 이어 올해 미국 현지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물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창립기념식에서 빛난 직원들의 열정

이어 '올해의 K-water人'이 발표됐다. '올해의 K-water人'은 조직 기여도가 높고 한 해 동안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모범이 되는 우수직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글로벌사업처 박장원 부장으로, 필리핀 앙갓댐 수력발전 사업을 시작해 사업 기반을 다지기까지 기여한 성과가 높이 평가되었다. 이밖에도 노사공동 e스포츠 경연대회가 열려 직원들의 참여와 화합을 더했다. 이번 기념식은 새로운 비전 선포뿐 아니라 직원들간의 소통과 협력의 가치 또한 되새기는 자리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AI 기반 물관리로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AI 물관리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해나갈 예정이다.

2025 올해의 K-water人 수상자



13년 전 필리핀 앙갓댐 수력발전 사업을 시작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이어졌지만, 작년과 올해 우리는 모든 난관을 넘어 사업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 성과는 개인이 아니라 K-water라는 열정과 경쟁력을 갖춘 조직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초한지』에 '준마의 꼬리에 붙은 파리가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 부족한 능력이지만 회사의 중요한 일에 참여하며 역할을 하다 보니, 이렇게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일하면서 6천여 명 중 세 명에게만 주어지는 올해의 K-water인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노력의 열 배, 백 배의 보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현지 동료들에게 돌아가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일하는 엔지니어는 2025년 올해의 K-water인이다. Global Leading Company K-water, 파이팅!"

글. 편집실 사진.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의 앞날을 열어갈 신입사원의 등장

2025 하반기 신입사원 입문교육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들이 본격 K-water인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조직의 역할과 업무를 이해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3주간의 입문교육이 실시되었다. 뜨거운 열정과 패기로 가득했던 신입사원 입문교육 현장을 담았다.

K-water인으로 성장하는 3주 간의 교육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입문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입문교육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핵심 사업과 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현장 체험형 교육, 현업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공문서 작성 등 실무 교육, 그리고 AI 업무혁신, 안전의식 제고 등 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기본소양 교육

먼저 K-water인으로서의 기초역량을 쌓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K-water의 역사와 비전, 중장기전략을 이해하는 '조직이해' 교육을 비롯해 직장인으로서의 기본 마인드셋, 청렴 의식 확립을 위한 강의가 이어지며 신입사원들은 공기업의 구성원으로서의 업무태도와 기본기를 다져나갔다.

실무 밀착형 시뮬레이션 교육, 신입의 한 수(水)

'신입의 한 수'는 실제 보고서 작성, 업무회의 등 업무절차를 모델링한 현업 시나리오 기반의 실무 밀착형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신입사원들은 현업 배치 후 초기 업무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직 적응력을 높였으며, 조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업과 소통역량도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선배 직원들의 설명을 들으며 K-water의 3대 초격차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한층 넓혔다.

신뢰와 격려를 나눈 만나보CEO

교육 마지막 날에는 윤석대 사장이 사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이어진 '만나보CEO' 코너에서 신입사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해소해 나갔다. 또한, 새 출발의 소중한 순간을 남기기 위해 함께 인증 사진을 남기며 뜻 깊은 시간을 마무리했다.

3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K-water인으로서 새로운 여정을 걸어갈 168명의 신입사원들.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멋진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가길 바라본다.



글. 편집실 **사진.** 한국수자원공사

첫눈과 함께 방울이 스노우 빌리지

2025 방울이 팝업스토어

첫눈 만큼이나 커다란 설렘을 안겨다 주는 방울이 팝업스토어가 열렸다. 58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직원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던 팝업스토어 현장을 담았다.

귀여운 방울이로 올겨울을 따뜻하게

전국 곳곳에서 첫눈 소식이 있었던 지난 11월 18일. 한국수자원본사에도 하얀 겨울 마을이 들어섰다. 공사 창립 58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하루에 딱 58분만 운영되는 방울이 팝업스토어가 마련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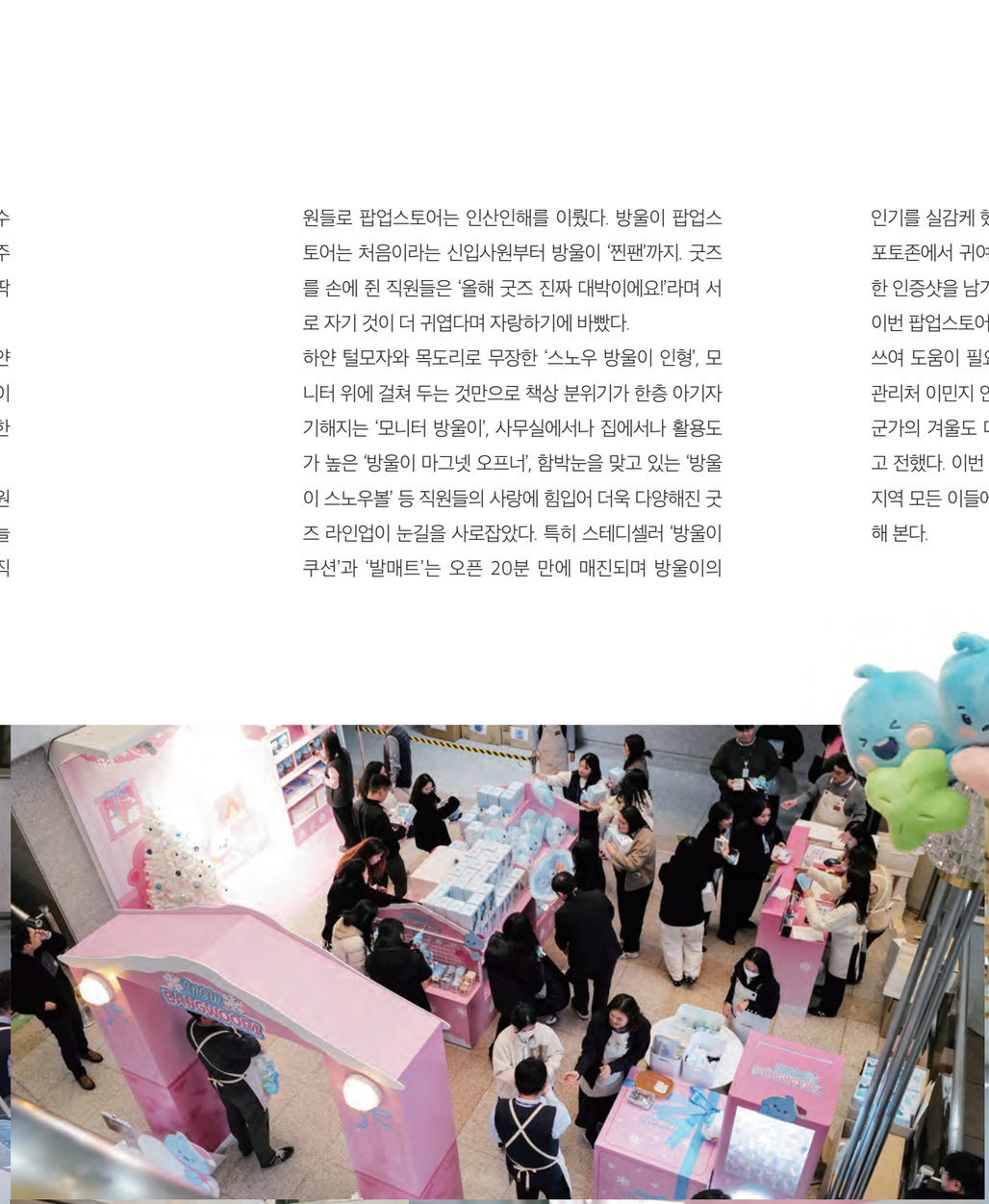
스노우 빌리지 콘셉트로 꾸며진 이번 팝업스토어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크리스마스 트리와 핑크빛 소품들이 마치 추운 겨울날 따뜻한 집에 들어온 것만 같은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난해보다 더 다채로운 굿즈가 출시된다는 소식에 직원들의 마음은 일찍이 들떠 있었다. 오픈 시간에 맞춰 '오늘은 꼭 원하는 굿즈를 손에 넣을 것!'이라며 서둘러 나온 직원들로 팝업스토어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방울이 팝업스토어는 처음이라는 신입사원부터 방울이 '찐팬'까지. 굿즈를 손에 쥔 직원들은 '올해 굿즈 진짜 대박이에요!'라며 서로 자기 것이 더 귀엽다며 자랑하기에 바빴다.

하얀 털모자와 목도리로 무장한 '스노우 방울이 인형', 모니터 위에 걸쳐 두는 것만으로 책상 분위기가 한층 아기자기해지는 '모니터 방울이', 사무실에서나 집에서나 활용도가 높은 '방울이 마그넷 오프너', 함박눈을 맞고 있는 '방울이 스노우볼' 등 직원들의 사랑에 힘입어 더욱 다양해진 굿즈 라인업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스테디셀러 '방울이 쿠션'과 '발매트'는 오픈 20분 만에 매진되며 방울이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방울이 굿즈를 모두 둘러본 직원들은 포토존에서 귀여운 방울이 조형물과 함께 겨울 감성 가득한 인증샷을 남기며 겨울날의 설렘을 만끽했다.

이번 팝업스토어의 수익금은 전액 사회공헌활동 재원으로 쓰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디지털관리처 이민지 인턴사원은 "귀여운 방울이 굿즈도 얻고 누군가의 겨울도 따뜻해질 수 있다니 더욱 의미 있네요!"라고 전했다.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01

제23차 아시아물위원회 이사회 개최
AI 물관리로 아시아 물협력 주도



지난 11월 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3차 아시아물위원회(이하 AWC)가 개최됐다. AWC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2016년 설립한 아시아 최대 물 분야 협력기구로, 현재 26개국 176개 회원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의장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베트남 농업환경부 차관·물환경협회 회장·북부수자원센터 센터장, 카자흐스탄 수자원공사 사장, 태국 국가수자원청 청장 등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아시아 각국이 직면한 기후위기 대응과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형 물관리 모델인 물관리 디지털트윈, 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SWNM) 등 초격차 물관리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사회와 함께 열린 기업기술박람회에는 15개 국내 물테크 혁신기업이 함께 참여해 K-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AI·빅데이터 기반 물관리 솔루션 기업, 지능형 누수 관리 기업 등 참가기업과 각국 정부 대표단, 현지 기업의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해 기술 교류와 수출 협력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AWC가 산업·외교·기술을 연결하는 다자협력 플랫폼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02

전사경영회의에서 중장기 전략경영계획(2026~2030) 발표



지난 11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사경영회의를 개최, 본사와 전국 현장 부서장, 임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전략경영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미래 물관리 전략체계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둔 새로운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춘 사업전략으로 구성됐다. 수자원·환경 사업은 국민·자연을 위한 기후안전망 강화, 수도 사업은 하이테크 기반의 물 서비스 확대, 에너지·도시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도시 조성, 글로벌·물산업 사업은 K-물관리 수출 활성화 및 기후테크 육성을 추진하고, 기능전략은 세계 최고 수준의 ESG 혁신경영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댐과 정수장 등 주요 국가 물관리 시설을 2030년까지 '예측-추론-검증-의사결정' 전 과정 AI 완전 자율 운영체계로 전환한다. 나아가 녹조와 오염원, 수질 변화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수질관리 체계를 가동해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기후안전망도 구축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규모(약 10GW)의 물 에너지 개발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단지,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안정적인 산업용수와 초순수를 공급하고, 물산업 유니콘 기업 육성 등 기후테크 생태계의 성장동력을 강화한다.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재무계획도 공개했다. 향후 5년간 AI, 에너지 등 미래 핵심사업에 약 20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로 글로벌 물기업의 외형과 내실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03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개최



지난 11월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국제 물 협력 행사인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이하 KIWW)가 진행됐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KIWW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광역시,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물의 미래를 함께 여는 스마트 혁신’을 주제로 카자흐스탄 수자원관개부, 케냐 물위생관개부, 미국 수도협회 등 전 세계 60여 개국의 물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행사에서 ‘K-water 홍보관’을 운영하며 미래형 물관리 기술과 글로벌 수자원 솔루션 등을 선보였다. 또한 AI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 생태계를 확산하는 동시에 글로벌 물안보 대응을 위한 국제 물 협력에 나서며 세계 물관리 리더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04 AI 정수장, 물 분야 세계 최초 OECD 글로벌 품질 인증 획득



한국수자원공사 AI 정수장이 물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OECD의 글로벌 인프라 품질 인증 ‘BDN’을 획득했다. OECD가 주관하는 BDN 인증은 지속가능성, 경제성, 환경·사회적 책임, 투명한 거버넌스 등 국제 기준을 충족한 인프라에 부여되는 글로벌 품질 보증 제도다.
이번 인증은 AI 정수장이 국제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는 점에서, 한국형 물관리 기술의 투자 경쟁력과 국제적 공신력을 동시에 인정받는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AI 정수장은 ‘스마트 물관리 사업’의 대표 성과로, 정수장 전체 공정을 AI가 스스로 학습·운영하는 ‘스마트팩토리형 정수장’으로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 사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AI 물관리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05 ‘2025 대전지역 혁신 및 기후테크 포럼’ 개최



지난 11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가 ‘2025 대전지역 혁신 및 기후테크 포럼’을 개최했다.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 및 R&D(연구·개발) 발전을 위한 기후테크 육성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대전을 기후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실천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윤석대 사장의 개회사로 문을 연 포럼은 물 분야 기후테크 혁신 및 사업화 방안, 기후테크 혁신 기술 및 인재 양성 방안, 지역 산업 및 도시시스템의 탄소저감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에너지-탄소 간 상호 연계성 관점에서의 접근법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물순환 시스템 전략을 공유했다. 기후테크가 지역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시점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전망이다.

06 지역키움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추진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 와디즈(Wadzi)와 협력하여 ‘지역키움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 가치 창출 프로젝트 ‘루트잇(RootIt)’의 일환으로 지역기업의 판로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펀딩에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식품 브랜드, 청년 농가의 로컬 푸드, 독자 기술 특허 제품 등의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을 포함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펀딩에 참여하는 시민이 고객이자 후원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로컬 브랜드의 성장과 재구매로 이어지는 참여형 지역경제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글. 정새배 KBS 기자

자연을 위한 객관적인 접근



정새배 KBS 기자

지난 10월,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거듭난 후 첫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탈원전 논란부터 탄소중립과 NDC까지. 당면한 수많은 현안을 두고 여야간, 정부와 국회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주제는 이들 '거시적' 현안이 아닌, 질의 과정에서 짧게 언급됐던 '반달가슴곰' 복원 이슈였습니다. 올해 기준 지리산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달가슴곰은 모두 93마리, 당초 복원 목표였던 50마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60% 이상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옆 나라 일본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곰으로 인한 인명사고 소식이 전해져 오는 터라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감에서 지적됐던 건 복원 사업이 '감성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복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해수구제 사업을 근거로 들고, 관련 부처의 홍보자료에 '대한독립만세' 등을 적은 것도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곰이 독립운동이라도 했느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물론 곰 복원 사업은 당초 생태계의 먹이사슬 전반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다만 목표 달성 후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개체 수, 이를 제대로 추적·통제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 우려스럽습니다. 복원 사업이 이어지는 동안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아쉬움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수상 태양광 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의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기존의 78GW에서 100GW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태양광 발전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수상 태양광은 육상 태양광보다 장점이 큽니다. 환경오염, 계통 연결, 전략망 확충 등의 제도적 제약이 덜하다는 점에서 수상 태양광은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가동에 들어간 '임하호 수상 태양광'의 경우 기존 수력발전과 연계해 계통 문제는 물론, 산림 훼손 등의 문제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국내의 수상 태양광 사업이 순탄하게 시작된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역시 주민 수용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임하호 또한 처음에는 주민 반대가 거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건 감성의 영역이 아닌, 그동안 진행됐던 과학적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설비를 통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약 10년에 걸친 추적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객관적인 결과물을 바탕으로 수상 태양광 설비가 수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같은 객관적 결과물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이제나마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수상 태양광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렀을 겁니다.

기후·환경 이슈를 둘러싼 논의가 치열합니다. 수십 년 후로 시간을 건너뛸 수만 있다면 지금의 논의는 아무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로든 지금보다 탄소배출은 줄어들 것이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역시 비교할 수 없이 확대됐을 것입니다. 다만 정책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보다 '감성'에 호소하는 순간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커지고, 그 피해는 모두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주장하든 '객관적' 근거에 우선한 논쟁이 자리 잡길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글. 조수빈 그림. 추관소

전지전능한 영웅 마우이가 남긴 선물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 속 모험심이 강한 소녀 모아나는 바다를 항해하며 부족의 미래를 구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다. 이 여정에는 든든한 조력자, 마우이가 있었다. 언제나 재치있는 해결책으로 모아나에게 조언을 하던 마우이는실제 폴리네시아 신화 속에서도 인간에게 수많은 선물을 남긴 존재다. 그가 남겨둔 것은 무엇일까.

엄지로 하늘을 들어 올렸지. 어린 너 뒤뚱거릴 때. 내가!
춥고 어두운 밤 불을 보내주신 분이 네 앞에 있지롱.
해도 잡아뒀잖아. 고맙지? 마음껏 놀 수 있잖아.
- <모아나> OST, Dwayne Johnson, 'You're welcome'

자연을 다스리는 영웅의 힘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에서 마우이가 처음 주인공 모아나에게 자기소개를 하며 부른 곡의 가사는 온통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다. 마우이의 귀여운 허언처럼 느껴지는 이 가사는 과장이 아니다.

바다의 신 '탕가로아(Tangaroa)'와 인간 '탕가라' 사이에서 태어난 마우이는 어린 시절부터 힘이 천하장사였다고 한다. 마우이에 대한 전설은 하와이, 뉴질랜드, 타히티 등 폴리네시아 문화권에 걸쳐 다양한 이야기로 전해져 오지만, 공통된 것 중 하나는 인간을 몹시도 사랑했다는 점이다.

먼저 마우이는 인간들에게 살아갈 터전을 선물해 주었다. 태평양에는 수천 개의 섬이 점처럼 흩어져 있었는데, 이 광활한 바다에서 사람들이 정착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바다 깊이 낚싯바늘을 던져 대지를 끌어 올렸다. 하늘이 너무 낮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늘을 들어 올려 인간들이 편히 설 수 있도록 했다. 해가 너무 빨리 지는 탓에 일 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한탄하는 인간들을 보고는 올가미를 던져 태양을 붙잡았다. 그 덕분에 인간들은 사냥과 농사를 하며 여유로운 낮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지하세계에서 불을 훔쳐오기도 했다. 불의 여신 '마후이카(Mahuika)'에게서 불을 얻고자 지하세계의 불씨를 꺼트린 마우이는 마후이카의 손가락에서 불씨를 하나 얻어냈는데, 그 과정에서 마찰로 불씨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유한한 삶이 안타까웠던 마우이는 죽음의 신 '히네누이테포'와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를 물리치면 인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끝내 그 싸움은 실패로 끝나며 마우이는 끝을 맞게 됐다.

신화 속에 담긴 고민

이처럼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가 그려내고 있는 마우이는 실제 신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애니메이션 속 마우이가 장난기 많은 캐릭터로 묘사되었다면, 신화 속 마우이는 '신성한 창조자'에 가깝다. 마우이는 인간에게 유익한 선물을 많이 베풀었을 뿐 아니라 폴리네시아 문화권의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항해길에서, 마을의 축제나 의식 속에서 마우이는 여전히 살아 숨 쉰다.

고대 폴리네시아인들은 별, 바람, 조류 등을 읽으며 미지의 바다를 개척해 나갔는데, 항해자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설 때마다 마우이를 떠올렸다. 그들에게 마우이는 개척의 상징이었다. 지금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타히티 등의 전통 카누와 돛에는 마우이의 낚싯바늘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밖에 태양의 궤도를 바꾼 영웅에 대한 숭배를 하거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할 때, 풍요로운 수확을 바라는 마을 축제나 의식에서 마우이는 항상 그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함께 하고 있다.

마우이의 영웅적 서사는 단순히 자연을 다스리는 힘에 대한 찬사가 아니다. 그 안에는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지 고민해 온 시간이 함께 담겨 있다.



#방울이의 알고리즘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

디오라마로 만나는
충주댐의 웅장한 모습

댐부터 물문화관까지
충주댐 경관을 한 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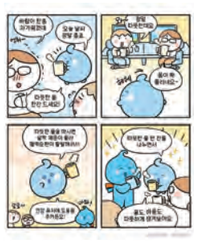
#충주댐 40주년
#디오라마 아트



블로그

영산강 따라
광주 한 바퀴

#영산강문화관 #국립광주과학관
#펭귄마을 #지산유원지



X(트위터)

날씨가 추울
따뜻한 물 한 잔
나눠 마시기

#겨울건강 #방울이의 티타임



페이스북

이제 진짜 겨울이잖아!
겨울철 난방비 절약 꿀팁

#적정 실내온도 #보일러 청소 #동파 방지



인스타그램

거꾸로 보면?
방울이가 사랑한대♡

#방울이의 고백 #비밀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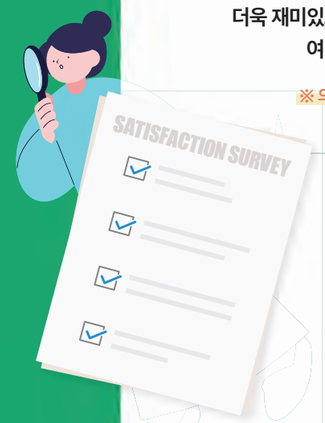
2025 <물, 자연 그리고 사람>

독자 만족도조사

물, 자연 그리고 사람

한국수자원공사 사보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사보 제작을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사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QR코드 접속 후 만족도 조사 참여

조사기간

12월 1일(월) ~ 12월 20일(토)

이벤트 경품

배달의 민족
3만 원권(3명)



방울이
스페셜 굿즈(5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50명)





<물, 자연 그리고 사람>

11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사보에 대한 소중한 의견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김○연(7526)

물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체수자원의 방안으로 해수담수화 기술이 접목된 충남 대산임해산업단지로 물 공급이 한층 강화된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네요. 글로벌 경쟁력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인(8687)

요즘 아이가 별자리에 관심이 참 많아서 함께 밤하늘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많아요. 알려주신 곳 모두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아름다운 별을 함께 보며 아이의 꿈이 더 클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양○식(7570)

서울에서 일하던 조카가 어느날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말렸었는데, 노력하고 애쓰던 조카의 농사가 안정되고 있는 걸 보니 땀은 거짓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조카 같은 차정환 농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정(2208)

정은혜 작가의 이야기가 참 따뜻하게 다가오네요. 발달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열어둔 창을 우리 사회 모두가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더욱 풍성한 아름다움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6975)

충주 활옥동굴의 이야기는 자연이 품은 신비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세월의 상처를 품고 다시 태어난 자연의 예술 같았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려는 마음이 담긴 공간이라는 점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

YES or NO 이벤트

이벤트 경품 커피+베이글 기프티콘 10명

지구에서 정화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물은 1%다? 정답은 NO!

지구상에서 물의 97% 정도는 바닷물이고, 3%의 담수 중에서도 대부분은 빙하나 지하 깊은 곳에 있어 사용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정화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물은 0.3%에 불과하다.

곽○용(2406) 박○윤(1999) 장○우(3666) 홍○현(1158)
김○연(8520) 오○연(0859) 조○희(5316)
남○진(7393) 이○정(4639) 한○은(1673)

#감정표현 방울이 이벤트

이벤트 경품 방울이 캘린더 5명

김○식(7810)
김○형(9663)
박○선(0515)
서○진(3817)
장○관(3483)



※12월 1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00으로 전화주세요.

방울이 옷 입히기

여러분의 취향대로 방울이를 꾸며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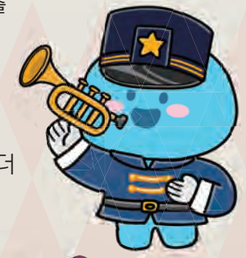
방울이의 변신은 무죄!
멋있게 변신한 방울이 모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2026 K-water 방울이 캘린더를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QR코드로 제출
접수 마감 12월 20일
선물 발송 12월 30일

응모하기

경품
2026 K-water 방울이 캘린더 (5명)







웹진 바로가기

방울이 옷 입히기 도안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